

구술성은 현대문학의 또 다른 매혹

고명철 문학 평론가, 광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현대문학에서 소홀했던 구술성

한국의 현대문학을 접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지나쳐 온 게 있다. 아 니,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간주한 채 조금도 의구심을 갖지 않은 게 있 다. 창작과 수용 면에서 고전문학과 달리 현대문학은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에 익숙해 있다. 인쇄술의 혁명적 발달과 보급은 종래 소수 특권층에만 국한되었던 문학 경험을 일반 대중에게 널리 확산시 켜다. 따라서 근대 이후의 문학은 구술성(orality)보다 문자성(literacy) 을 중심으로 한 문학 경험이 주류를 차지한다. 이것은 국민 국가의 출 현 과정 속에서 표준어 제정과 관련한 어문 정책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 면서 현대문학을 문자성 위주로 한층 강화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문자성의 위력에 의해 밀려난 구술성이 현대문학에서 매우 요긴한 몫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자성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우리말의 오묘하고 살아 숨 쉬는 실감을 절묘하게 포착한다. 물론 여기에는 구체적 현실을 살고 있는 삶의 언어를 문자성

으로는 온전히 형상화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지역 고유의 풍속과 역사의 실상이 지닌 삶의 질감을 표준어으로써 온전히 감당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지역민들의 삶의 구체성이 자연스레 녹아든 구술성이 표준어에 기댄 문자성 위주의 표현보다 한층 지역민의 문학적 진실을 잘 구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문학에서 우리가 새롭게 주목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구술성이 지닌 우리말의 미적 체험 양상이다.

2. 현대소설에서 구술성의 매혹

우선 다음에 제시한 송기원 단편의 일부분을 눈으로 읽지 말고 소리 내어 읽어 보자.

그라고 봉께, 손님, 나가 여태까장 몰랐었는디라우. 궁께, 얘기를 잃어쁜 담에 가심은 물론이고, 온 몸똥어리가 텅 비어쁜 것 같아갖고 실성해서 돌아댕기다가 어느틈에 그 병이 낫었는디라우. 나는 그 병이 우찌게 낫었는 중 몰랐등만은 인자 봉께, 바로 손님들이 나 병을 낫어준 것 같구만이라우.

아니, 나모냥 씩은 몸똥어리라도 좋다고 찾아준 사람들이 이 넓은 시상에 손님들말고 또 있었겄소? 없제라우. 나는 그것도 몰르고 손님들을 모다 기냥 장삿속으로만 대했는디, 오메, 글고도 나가 여태 까장 천벌을 안 받았구만이라우. 궁께 내 얘기가 빠져나가뿐 바로 그 자리를 손님들이 꺾깜씩 꺾깜씩 메파줬는디, 나는 그걸 몰랐구만요. 그렇게 손님들이 메파준 것들이, 한여름밤에 눈두렁질을 가다

보면 망초꽃들이 무신 무데기들멘키롬 여그저그 뭉탱이로 피어나
데끼, 시방 내 몸뚱어리에도 무데기로 피어나는 것 같구만이라우.
(송기원, 〈늙은 창녀의 노래〉, 《인도로 간 예수》, 창작과비평사,
1995, 181쪽)

작중 인물은 창녀다. 그가 여성으로서 생명을 잉태한 기쁨은 무엇
과도 비교할 수 없지만, 새 생명을 사산하여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을 앓
는다. 그런데 늙은 창녀의 이 곡절 많은 애달픈 사연은 남도어의 유장
한 가락에 실려 마치 인생이란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상처투성
이지만, 상처 입어 텅 비어 있는 자궁이 생의 낯선 움직임들로 인해 조
금씩 공복감이 채워지더니, 마침내 온데간데없이 그 상처가 아물고, 또
다른 새 생명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 생의 감각을 만끽하고 있다며, 늙은
창녀로서 ‘자기혐오’의 윤리를 넘어 새로운 삶의 희열감으로 충일돼 있
다. 비록 자궁의 공복감을 채우는 게 자신의 몸을 파는 반사회적, 반윤
리적 행위를 통해서지만, 성적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매춘을 넘어 삶의
그 어떤 온기가 그의 자궁 속 상처를 아물게 한 타자들의 아름다운 뭉이
었다는 점을, 그는 새롭게 인식한다. 여기서 우리는 작가에 의해 자유
자재로 구사되고 있는 남도어의 구술성이야말로 이러한 늙은 창녀의
삶을 추한 것으로 단정 짓는 것을 경계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작가가 의식적으로 애써 구사하고 있는 남도어의 구술성은
늙은 창녀의 손가락질 받는 삶이 결코 그를 향한 ‘자기혐오’에 갇히지
않도록 한다. 오히려 남도어의 유장한 구술성은 곡절 많은 늙은 창녀의
삶을 반윤리적으로 쉽게 매도할 수 없는, 어떤 연민의 시선을 갖도록 한
다. 그리하여 우리는 일상의 윤리적 감각 너머에 존재하는 삶의 진실을
향한 새로운 윤리미를 체험한다.

이렇듯이 작가의 구술성은 문자성만으로 온전히 포괄하기 힘든 삶의 진실을 담아낸다. 그런가 하면, 한국 사회의 꿈을 대로 꿈은 부정한 것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서사적으로 수행하는 데 구술성이 그 진가를 발휘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작가로 이시백을 들 수 있다. 동시대의 작가들 대부분이 도시의 일상에 주목하는 작품을 통해 도시인들의 다양한 욕망의 풍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이시백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주요한 문제로서 농촌과 농민의 현실을 예의주시한다. 무엇보다 이시백은 우리 시대의 농민이 당면한 문제를 지식인의 목소리가 아닌 농민의 목소리로써 사회적 비판의 몫을 충실히 수행한다. 가령, 그의 단편 〈송충이는 무얼 먹고 사는가〉에서는 충청도 특유의 능청스러운 언어유희로써 한국 사회가 직면한 농정(農政)의 파탄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무엇보다 이 문제의 한복판에 놓인 농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그들의 목소리가 어떤 사태를 총체적으로 사유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 해결책을 강구하는 이른바 과학적 인식을 요구하는 지식인의 입장은 아니지만, 탁상공론식 행정이 아닌 농촌의 현실 복판에서 침예하게 부딪치는 문제적 현실을 구체적으로 보고 들으면서 그 해결점을 실질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게 다 빈대 타 죽는 것만 선히 여기면서 제 초가삼간 태워 먹는 건 모르는 꼴 아니겠슈. 땅 주인들두 알고보믄, 그깟 일 년에 쌀 한 가마니 금이나 제우 될까 말까 험 직불금이 욕심난 게 아니잖유. (중략) 정 분한 마음에 화풀이 삼아 험 일이라문 얼굴 뻘히 아는 면사무소 농정계장헌티나 즘잖게 한마디 이르믄 될 일이지, 감사원이구 뭐구 청와대가 다 머시래유? 그러 군내 여덟 면이 발각 뒤집어지구, 그사

람 좋은 면장꺼정 거품 물구 쓰러지게 만들어 저 좋은 게 뭐난 말여유. 워졌든 텔레비전꺼정 오르내리면서 거시기헌 이들을 옥살이럴 시킨다, 직장서 쫓아낸다 소문이 흥흥하니 대번에 땅 주인들이 크 땅을 돌려 달라 히는 게 아니것슈? 구러니 저두 죽구 남두 죽구, 곁에서 음전허니 귀경허던 이웃들꺼정 떼죽음을 시켜 놓았으니 누가 그 이럴 좋아허겠난 말여유. 동네서 돌려뱅이럴 치구 헛똑똑이래구 손가락질허는 거 거시기허다 혈 수두 없슈.(이시백, 〈송충이는 무얼 먹고 사는가〉, 《갈보콩》, 실천문학사, 2010, 113~114쪽)

직불금과 관련한 농정이 농촌의 현실과 얼마나 많이 동떨어져 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는 농민의 비판적 푸념이다. 자신이 소유한 땅에 농사짓기를 마다하는 농민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그렇게 농사를 지어 봐야 농가 부채만 늘어나고 생계유지도 곤란한 현실에 놓이므로, 농민은 아예 농토를 도시인에게 팔고, 도시인에게 허락받아 그 농토에다 농사를 지어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차라리 낫다고 여긴다. 이참에 직불금 파동이 나면서 실제 땅 주인에게 농사짓는 땅을 다시 돌려줘야 하니, 농민들은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한 채 사면초가의 형국에 놓인 셈이다. 농민들의 이 비판적 푸념의 행간에는 이 같은 농촌의 구체적인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농민들은 결코 무지렁이가 아니다. 도시인들이 무엇 때문에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그들의 농토를 사들이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다. 농민들은 자신의 농토가 도시인들의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고 그들의 소작인 처지로 전락한 것 자체가 서글프고 안타깝다. 하지만 직접 농지를 소유한 채 농사짓는 일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농지를 팔 수밖에 없고 이제 주인이 아닌 상태로, 직불금 파동이 나면 그나마 짓던 농사도 지을 수 없다. 이것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대해 자기 풍자적 태도를 보인다.

3. 구술성의 시적 매혹

그렇다면, 시에서 구술성은 어떤가.

역사의 참상을 문학적 상상력으로 극복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역사의 복판을 흐르는 언어의 진실에 다가가야 한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제3자의 언어가 아닌 당사자의 언어가 막중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 제3자의 언어가 매개되었을 때 아무리 노력하여 역사적 진실에 근접한다고 할지라도 당사자의 고통과 기억이 굴절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덕환 시인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리하여 그의 시작(詩作)은 역사의 당사자 언어를 시적으로 충실히 재현하고 있다.

물 싸민 해영헌 모살/물 들민 널른 바당//열 여덟에서 마흔까지 토
산리 젊은 사름덜/향사로 모이랜 허난 줄레줄레 간 겁주/그 사름덜
모살판에 꿇어당 무사 죽여불미파/잊혀지질 안 험니께, 동짓덜 열
아흐렛날/곱닥헌 처녀덜 따로 심어단 어뎡 해분 애긴/입 증강 말쿠
다//토벌 갈 거매 지서로 모리랜 허난/세화리 사름덜 어이쿠! 이거
이제 살아질로고나/나홀치 쏘이영 출래 ㄹ심 짚어정 가신디/모살판
에서 오곳 죽여분덴 현 말이 무슨 송시파/어뎡 잊어불니까 동짓덜
열 일렛날/경만 현 계 아니라 다리에 총 맞아 살아난 사름/기명 들으
명 집이 와신디/뜨시 심어강 죽여불 일은 무슨 말이우파/그 사름 혼
자만이민 무사 이 말을 ㄹ릅니까/아이덜이영 각시까지 심어단 죽여
부난/물이라도 거려냥 식게 멩질 츠릴 대가 끊어져 분 거라미썸//
(중략) 다 곤쟁흐민 모살만헌 날이 이서사 혈거난/고만 ㄹ르쿠다만
은 하다 잊어불지 말양/옴은 거, 그른 거 그릇 굿영 밝히곡/억울헌

원정 풀어주명 이런 일 다시 없게끔/바당 곶이 널른 모습덜 가정 살
아가게마씀(강덕환, <근건 들어봅서> 부분, 《그해 겨울은 춥기도
하였네》, 풍경, 2010)

제주어로 이뤄진 시다. 제주어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은 이 시가
암호문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시는 4·3 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핏진
하게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중적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이 시
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억울한 제주 민중의 죽음이다. 그런데 이 맺힌
한을 제주어가 아닌 표준어로 구사한다면 어떨까. 사실, 표준어로 구사
한다고 해서 억울한 죽음이 제대로 형상화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떻게 보면, 표준어로 쓰였다면 좀 더 광범위한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
에게 4·3 사건의 역사적 참상을 널리 알릴 수 있다. 이것은 중요하다.
4·3 사건이 변방의 섬에서 일어난 역사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과잉 폭력으로 무고한 민중이 죽은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차마 일어
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해 줘야 한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시인이 민활히 구사하고 있는 제주어의 시적 표현은 예사롭지 않다.
구술성이 지배적인 제주어를 적극 구사해 4·3 사건의 시적 탐구는 한
층 심층적이다. 위 시는 그 단적인 사례다.

위 시는 두 가지 속성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하나는 우리에게 익
숙한 근대문학으로서 시의 특질이고, 다른 하나는 낯은 새로움이라 할
수 있는 구술성의 특질이다. 위 시를 가만히 읊어 보면 제주어만의 독
특한 음가(音價)에 시적 매혹을 느낄 수 있다. 유음(ㄹ)과 비음(ㅁ, ㄴ,
ㅇ)의 매우 절묘한 배치와 배합은 언어절(言語絶)의 4·3의 비극을 망
각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속되는 한 기억되고, 기억의 연쇄 작용을 통
해 4·3 사건의 상처가 절로 치유의 길을 밟도록 한다. 따라서 누가 강

제로 4·3 사건을 망각하게 하고 기억의 연쇄를 절단하려고 하더라도, 제주 민중의 삶 깊숙이 배어든 제주어 특유의 활력은 이 인위적 폭압을 해체해 버린다. 그렇다면, 구술성이 지배적인 제주어야말로 비틀린 역사를 부정하는 전위적 언어로 손색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 시인은 4·3 사건의 비극적 참상을 겪은 역사의 당사자가 직접 말 하도록 함으로써 다시는 이 땅에서 억울한 죽음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갖고 평화롭게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야 한다는 염원으로 시를 매듭짓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주어의 시적 효과는 비단 4·3 사건을 다룬 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제주인의 삶과 죽음에 관한 시적 진실을 드러내는 대목에서 제주어의 매혹은 유감없이 발산되고 있다.

양지공원에도 못 가 보고 집이서 귀양풀이 헛 텐 허영게 그딘 가 봐
 사혈 거 아난가? 기여게 맞다게 얼굴 보민 속만 상히고 고를 말도 없
 고……심방어른이 가시어멍 거느리걸랑 잊어불지 말앗당 인정으로
 오천 원만 걸어도라 미우나 고우나 단사운디 저싱길 노жат돈이라도
 보태사주 경허고 영게 올리걸랑 촌젠 말앙 막 울어불렌 허라 속시원
 이 올렌허라 쉼 올듯 울어사 시원해진다 민호어멍 정신 섞어정 제대
 로 울지도 못 해실거여 막 올렌허라 울어부러사 애산 가슴 풀린다
 울어부러사 살아진다 사는 게 우는 거난 그자 막 올렌허라 알아시
 냐?(김수열, 〈어머니의 전화〉 전문, 《생각을 훑치다》, 삶이 보이
 는 창, 2009)

김수열 시인의 〈어머니의 전화〉에서 시적 화자인 어머니는 전화로 민호네 귀양풀이(장례를 지낸 후 망자를 저승으로 보내기 위해 행하는

제주의 무속 의례)에 대해 당부를 한다. 자신이 직접 귀양풀이에 참여를 못하니, 그 무속 의례에 참여하여 민호 어머니로 하여금 마음껏 울어 망자에 대한 슬픔을 다 토해 내야만 이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들에게 주지시킨다. 이 어머니의 당부 전화 내용 역시 ‘ㄹ/ㅍ/ㄴ’ 음의 음상으로써 삶과 죽음의 관계를 비의적으로 포착한다. 삶과 죽음은 분명 다른 것이되, 망자를 저승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살아 있는 자의 슬픔이 극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 슬픔을 애써 참는 게 아니라 슬픔이 유장하게 넘쳐흐를 때 극에 이를 수 있다. 그럴 때 망자는 이승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도 저승으로 편하게 떠나고, 살아 있는 자는 망자의 순탄한 저승행을 기꺼이 믿고, 이승에 살아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새로운 용기를 얻는다. 삶과 죽음에 관한 이 오묘함을 김수열 시인은 제주어의 구술성을 통해 매우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시 쓰기는 고향이 제주인 시인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제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한 시는 제주의 토속성에만 함몰되는 게 아니라 그 토속성이 취하고 있는 세계 보편성을 시적 형상화로 절묘하게 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시인 백석이 평북 지역어를 통해 한국 시의 새로운 경지를 열어 보였듯이, 시인이 획득한 제주어의 시적 성취가 한국 시의 또 다른 미적 성취를 일궈 내고 있다.

이처럼 구술성은 문자성과 다른 차원에서 문학을 성찰하도록 한다. 끝으로, 이와 관련하여 덧붙이자면, 시에서도 구술성은 민중의 구체적 현실을 억압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철저한 부정의 태도는 물론, 민중의 아픈 상처를 감싸 안는 시적 치유의 몫을 수행한다.

주름이 늘면서 욕심도 늘어나더라고/담배농사는 말이지 사람이 짓

는 게 아녀/목돈냄새 맡아보려고 하우스를 두 동이나 빌렸는데/목돈은 그만두고 비닐 값도 어렵없게 되었어/물렁해진 골초 때문에 엮어 걸기도 어렵고 큰 일여/담배고랑 기다보면 신물부터 나온다니까/그렇게 삼십년이여/손에 굳은 때가 켜어/어제는 김치 담갔는데 쓰다며 죄다 안 먹더라니까/몸뚱이도 골초 간 게 분명허여/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짐승이 된 거여/뼈까지도 머리까지도 골초 간 거여/우린 사람 되긴 글러먹었다니까/어차피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이경호, 〈인터뷰〉 전문, 《비탈》, 애지, 2014)

위 시는 시적 화자 ‘나’의 어머니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를 여실히 들려준다. ‘삼십 년’ 동안 담배 농사에 열심인 어머니의 삶과 운몽은 ‘골초’ 투성이다. 위 시에서 애달프게 다가오는 것은 담배 농사의 영향 때문인지, 어머니의 일상이 온통 담배 냄새에 휩싸인 채 그 스스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짐승이 된 거여/뼈까지도 머리까지도 골초 간 거여/우린 사람 되긴 글러먹었다니까/어차피 사람이 아니었다니까”라고 하는 행간에 배어든 담배 농가 민중의 신산스러우면서도 고달픈 삶의 행로다. 이 행로에 차마 말로 이루 다 못할 슬한 삶의 상처들과 사연들이 얼마나 많이 켜켜이 쌓였을까.

그렇다. 한국 현대문학은 문자성 못지않게 구술성을 통해 문자성이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문학의 비의성(秘意性)을 형상화해 내고, 인간 근원의 그 무엇을 치열히 탐구하고, 역사의 구체적 현실 속에서 부딪치는 삶의 진실에 다가가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 구술성은 현대문학의 또 다른 매혹이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문학에서 구술성과 문자성 중 어느 것이 훨씬 매력적인 것인지 감론을박할 필요는 없다. 구술성과 문자성이 나름대로

창작자의 창작 의도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되면 그만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문자성의 주변으로 밀려난 구술성의 문학적 매혹이 결코 폄하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시 강조하건대, 오히려 문자성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어떤 진실을 구술성은 자연스레 담아낸다. 눈으로 읽으면서, 동시에 입으로 읽고 그 소리를 귀로 듣는, 곧 시청각의 모든 감각을 동원한 문학이 지닌 매혹이야말로 현대문학이 놓쳐서 안 될 또 다른 문학적 감동이다.